



배포 2024. 1. 25.(목)

베트남 중부 지역 한국어 교원 집중 연수 개최

- 중·고 한국어 예비 교원 36명 대상 한국 교수진 다낭에서 합숙 지도
- 다낭 34개교 5,700여명 학생 대상 신규 한국어 교육 지원 예정

- 대한민국 교육부 부설 호치민시한국교육원(원장 길호진)은 1월 22일(월)부터 26일(금)까지 중부 지역 한국어 채택교 확대를 위한 예비 한국어 교원 대상 집중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 - 이번 연수는 국제한국어교육재단(이사장 임영담)과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, 고려대 김정숙 교수 외 2명의 한국어 전문가가 직접 다낭에서 베트남 맞춤형 한국어 교재 및 평가 등에 대해 합숙 지도를 하였다.
 - 동 연수에는 예비 한국어 교원 36명이 참석하였으며, 이들은 모두 다낭 지역 중·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다.

[연수 개요]

- △ (일정) 1.22.(월) ~ 1.26.(금), 4박 5일
- △ (장소) 다낭 풀만 리조트
- △ (대상) 초·중등 한국어 채택교 교원 활동 예정 36명
- △ (주요내용) 베트남 한국어 교재 개발 원리 및 활용, 듣기·말하기 교수법, 성취도 평가 등

- 호치민시한국교육원은 2023년 8월 베트남 교육훈련부로부터 활동 범위를 기존 호치민시에서 다낭 이하 남부지역으로 확대 허가받고, 이어 10월 다낭교육청과 MOU를 통해 관내 중·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 도입하기로 하였다.

- 특히, 다낭교육청의 관내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34개교 5,700여명 규모의 한국어 교육희망을 확인하고, 양질의 교원 배치를 위해 다낭외대, 동아대, 두이떤대 한국어 교수 36명을 예비 교원으로 확보하였다.
 - 다낭교육청을 통해 정규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, 한국인 교민과 관광객이 늘어나는 지역의 특성과 맞물려 실용적인 한국어 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개강식에는 다낭교육청 마이 띵 린 부청장, 강부성 다낭 총영사,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임영담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 의사를 밝혔다.
- 마이 띵 린 부청장은 “다낭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하였으며,
 - 강부성 총영사는 공관 차원의 외교, 행정적 지원 의사를, 임영담 이사장은 교육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 개최, 맞춤형 교재 지원을 약속하였다.
 - 길호진 호치민시한국교육원장은 “호치민, 달랏에 이어 다낭에서도 정규학교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 매우 기쁘며, 향후 한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냐짱, 꾸이년 지역 등으로 교육 확대를 추진하겠다”고 하였다.



○ 단체 사진(개강식, 1.22.)



○ 마이 먼 린 다낭교육청 부청장



○ 강부성 주대한민국다낭총영사관 총영사



○ 임영담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

